

① 고령환자에 취침시간...순식간에 유독가스 퍼져 질식사

6분만에 진화됐는데 인명피해 컸던 4가지 이유

- ② 스프링클러 미설치...소방법상 정신의료기관 포함 안돼
- ③ 번호키 출입문..... 거동 불편 환자들 신속 대피 못해
- ④ 유리창 방범 창살.....유리창 열기 힘들고 환기·탈출 어려워

화재 피해면적 2평 불과 대형참사로

28일 새벽 장성 호사랑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짧은 순간에 20명이 넘는 인명을 앗아갔다.

요양병원은 인근에 소방서가 위치한 덕분에 6분여 만에 화재가 진화됐으나 2층 병실에 있던 노인 34명 중 6명만이 탈출했으며, 노인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 등 21명이 숨졌다. 또 8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모두 고령인 탓에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실정이다.

이번 화재는 신속히 진화돼 피해 면적이 약 6㎡(2평 남짓)내외 수준에 불과했다. 방화로 불이 시작된 곳은 2층의 한쪽 끝인 다용도실이었고, 6개인 병실(6인실)에는 전혀 불이 옮겨 붙지 않은 상태였다.

화재로 인한 피해 면적이 미미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가 커, 그 원인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사망자들은 대부분 화상 정도는 심하지 않았으나 질식사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가장 큰 사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유독 가스에 노출됐을 경우, 일반적으로 5분 이내에 정상 호흡을 되찾아야 하지만 대다수 환자들이 거동이 불편한 상태여서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들은 80대 전후의 치매나 누워서 생활하는 고령자들로 심폐기능이 떨어지고, 뇌기능이나 기타 운동능력 등 신체능력 자체가 일반 성인에 비해 약해 유독가스를 이겨내지 못했다.

또한 출입문이 번호키로 되어 있는 점, 유리창이 일반 성인 정도의 근력이 있어야 열고 닫을 수 있는 점, 유리창에 창살(소방관이 힘을 가하면 제거되는 수준)이 더해



진 점 등도 환기와 탈출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의 안전 시설에 대한 규제가 미약한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이 다.

요양병원은 소방법상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반면 비슷한 성격인 요양원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요양병원에 대해 느슨한 관리 규정이 화를 키운 셈이다. 스프링클러만 설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

호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본관 3층, 별관 3층 건물(지하 1층 포함)
-총 병실 53개, 병상 397개
-324명 입원 중이었음

간호조무사 김모씨, 사고사실 알린 후 소화기로 진화에 나섰다 질식사 사망
3006호 다용도실 매트리스나 담요 등 가연성 물질 적치

치돼 있었다면 불이 번지지 않아 대부분의 노인들이 무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요양병원 안전시설에 대한 규정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들이 28일 오전 화재로 29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군 호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서 경찰 과학수사대 직원들과 현장감식 작업을 하고 있다.
/장성=나명주기자 mina@



80대 노부모와 함께 입원했다 50대 아들만 숨져 비통

엇갈린 생사... 안타까운 사연

장인 숨지고 사위는 구사일생

화재 당시 병원 본관과 별관으로 나뉘어 입원중이던 80대 노부모와 50대 아들의 생사가 엇갈린 안타까운 사연도 알려졌다.

장영홍(87)·김태옥(82)씨 부부는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중이던 큰아들 이식(53)씨와 함께 지내기 위해 2개월 전 구미에서 내려와 이 병원 별관 2층으로 옮겨왔다. 하지만 화재 사고 2주전 장씨는 혈압 치료 문제로 병원과 다툴 뒀, 부인과 아들을 남겨두고 고향 구미로 돌아갔다가, 아내 투고는 아내와 아들 생각에 사고 발생 하루 전날 병원으로 돌아왔다.

장씨 부부는 재입원 과정에서 아들이 머물고 있는 별관이 아닌 본관으로 병실을 잡았다. 병실이 더 쾌적해 보였고 왠지 더 마음에 끌렸기 때문이다. 아들이 머문 별관 2층과도 통로로 연결돼 있어 노부모는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노부모가 재 입원을 통해 병실을 옮겨간 지 불과 7시간만에 이 병원 별관에 불이 났고, 아들은 유독가스를 마시고 숨졌다.

장씨는 사고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달려온 둘째 아들 종식(45)씨에게 “불이 난 것을 봤다. 너희 형이 있는 병동이다. 형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종식씨는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고 둘러대야 했다. 종식씨는 형의 사망 소식을 아직도 부모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다.

또 장인과 사위가 함께 입원했다가 장인만 숨지도 했다. 이와 함께 유족들은 “직접 모시지 못하는 것도 미안한데, 홀로 계시다가 변을 당했다”며 자책감에 애통해 했다.

망자들이 안지던 응급실마다 유족들의 오열이 이어졌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병원측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형호기자 khh@ /장성=김용호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 28일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문을 나서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아버지도 저 안에...” 뒤늦게 부친 사망 확인하고 오열

출동 119대원의 눈물

부친 생사 확인 못하고 진화작업

“아버지도 저 안에...”

28일 새벽 21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장성 호사랑요양병원 화재 현장의 구조작업에 투입됐던 한 소방관의 아버지도 그 곳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날 새벽 요양병원에 화재가 나자 소방당국은 치매·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수시명을 구조하기 위해 인근 소방서의 가용인력을 총동원했다.

소방관 홍모씨도 출동 지시를 받고 ‘살마’하는 불안감을 안은 채 합곡길 소방서로 향했다.

안타깝게도 홍 씨의 염려는 현실이 됐다. 치매를 앓던 70대 아버지가 입원한 바로 그 요양병원이었고, 하필 아버지의 병실이 있는 층에서 불이 났다.

그러나 유독가스에 얼굴과 환자복 곳곳이 검게 그을린 채 의식마저 희미한 노인들이 별관 앞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있고 병실 안에 환자들이 더 남아있

을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버지 생사를 먼저 따질 수는 없었다.

바로 구조 임무에 들어간 홍 씨는 화재 현장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아버지의 행방을 찾았다.

아버지는 2층에 있던 34명의 환자 중 스스로 탈출한 6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이미 밖으로 구조돼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

불안한 가슴을 죄며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등진 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구조에 나선 119대원들도 상황이 종료된 오전 6시가 넘어서야 홍 씨의 아버지가 사고 현장에서 숨진 사실을 알았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 투입된 한 동료 소방관은 “구조작업을 하던 중 뼈를 다쳐 광주의 한 병원에서 장기 요양 중인 어머니가 떠올라 불안하고 괴로웠다”며 “하를 며 아버지의 병실에 먼저 들어가기도, 동료들에게 대신 구해달라고 부탁하기도 못하고 묵묵히 구조를 수행한 홍 씨의 심정이 어땠는지 말로 헤아리기도 어렵다”고 안타까워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쌍용자동차 60년
국민의 사랑 60년

아리아
심포니
오페라
레퀴엠
...

그 감동의 소리에 심취되었습니다

세계 명차들이 선택한 감동의 명품 사운드 시스템, 하만카돈!
그리고 5월의 놀라운 혜택들, 지금 체어맨에서 누리십시오

Wonderful finance program

2014 VVIP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무상제공(160만원 상당)
+ VVIP Voucher 제공(80만원 상당) *일부 불모지는 해당부서

최저 1.9% Hair 유예할부: 1.9%서리(50%) + 5.9%유예(50%)
+ LED TV(KB국민 이용시)

Best change program

혜택
체어맨 대차 시 최대 1,400만원 잔가 보장

대상고객
2009년 이전 체어맨 보유 고객
*보유 차량 상태에 따라 보증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Chairman 7years promise

기대 15년km 무상보증 서비스(일정차체+연간구동)
7년 7개 프로그램 및 5년 5개 서비스
기대 스포츠용수업(17개 항목)
VVIP Voucher 제공(80만원 상당)
대상고객
*주요보증서비스: 전 차량
*VVIP Voucher, 7년 7개 프로그램, 5년 5개 서비스, 스포츠용수업: V6 5000이상 차량

구입의견

· 문의처: 광주점 529-0003 서울주 383-3434 광주점 952-3330 목동점 971-0980 광주점 655-4001 동광주 815-1900
· 연락처: 순 천 745-3686 순천점 723-7100 신역수 654-3522 목포점 277-8000 화순 371-3555 단흥 863-2600 나주 334-2727 강진 433-3100 태안 537-3100 보성 652-2662
· 영업시간: 평 09:00~18:00, 일 09:00~17:00, 휴무: 월요일, 법정공휴일, 연휴, 추석 당일, 설 당일, 단풍절 당일, 12월 31일,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 12월 31일

· 쌍용자동차와 미래를 함께 할 쌍용가족을 모집합니다. - 판매수수료 + 인센티브 + 정착지원금 - 리콜 만족률률 지원금 추가 지급 - 판매수수료 제외모티스 할인 - (광고/협수) www.amoterecruit.co.kr

대한민국 CEO CHAIRMAN